서해안 대박… 자유로 반짝… 영동고속도로는?

뉴스 인사이드 | 역대 '무도가요제' 연간차트 순위 살펴보니

1회 강변북로·2회 올림픽대로 성적 저조
서해안 '바람났어' 등 7곡 100위권 대박
자유로 '해볼라고' 빼곤 한 달 반짝 인기

MBC '무한도전'의 '영동고속도로 가요제'에서 소개된 곡들이 27일까지 엿새째 음원차트를 점령하고 있다. '레옹' '맙소사' 등 22일 공개된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6곡의 디지털 음원은 27일 오후 1시 현재 멜론 지니 엠넷닷컴 등 국내 대부분의 음악사이트 실시간 차트 1~6위에 올라 있다.

'차트 올킬' '줄 세우기'로 표현되는 '무한도전'의 이 같은 차트 독식은 새삼 새로울 것 없는 현상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무한도전 가요제' 음원 성적이 매번 좋았던 건은 아니다. 과거 차트를 살펴보면 '무한도전'이 일시적인 바람이었던 때도 있었다. 직전 행사였던 2013년 '자유로 가요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 모든 음악사이트의 자료를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가온차트의 2013년 연간차트 100위권에서는 '자유로 가요제' 음원을 단 한 곡도 발견할 수 없다. 국내 음악사이트 시장 점유율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멜론의 2013년 연간차트에서는 90위에 오른 '해볼라고'(정형돈·지드래곤)가 100위권에 오른 유일한 곡이다.

'자유로 가요제' 음원이 그해 11월에 공개돼 연간차트에 반영되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월간차트를 분석해보면 역시 '반짝인기'였다는 것이 증명된다. '자유로 가요제' 음원이 나온 2013년 11월 멜론 월간차트에서는 음원 9곡 중 8곡이 2위부터 36위까지 상위권에 올랐지만, 다음달 차트에선 '해볼라고'(29위) '플리즈 돈트 고 마이 걸'(49위), '오빠라고 불러다오'(73위) 등 3곡, 그 다음달 차트에선 89위의 '해볼라고'가 유일했고, 이후 차트에서 사라졌다. 한 달만 '반짝'했던 것이다.

2009년 7월 공개된 '올림픽대로 듀엣가요제' 성적도 '생각보다' 저조하다. 멜론 연간차트 톱100에는 박명수·제시카의 '냉면'과 타이거JK·윤미래·유재석의 '렛츠 댄스' 2곡이 각각 74위, 86위에 올랐을 뿐이다. 2007년 9월 공개된 '강변북로 가요제'에서는 하하의 '키 작은 꼬마 이야기'만이 멜론 연간차트 69위에 올랐다.

2011년 '서해안고속도로 가요제'는 '대박'이었다. 그해 가온 연간차트에서는 '바람났어'(2위)를 비롯해 '압구정 날라리'(19위) '나만 부를 수 있는 노래'(55위) 등 9곡 중 7곡이 100위권에 올랐다. 멜론 연간차트에서도 6곡이 10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엠넷 '슈퍼스타K3' 음원도 멜론에서 6곡이나 100위권에 들었다는 점에서 '무한도전'만의 잔치라고는 할 수 없다.

멜론 관계자는 "연간차트에 오른 곡들은 꾸준히, 오랫동안 차트에 머물러 있었다는 의미다. 일시적인 열풍이라면 연간차트에 오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 아무리 '무한도전' 음원이라도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대중의 냉정한 '귀'를 사로잡지 못한다면 결국엔 '미풍'에 그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이번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음원이 얼마나 오랫동안 차트 독식을 하느냐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영동고속도로가요제 음원매출 '300억' 넘었다

5일째 주요 5개 음원사이트 1~6위 독식
제작진, 제작비용 제외한 전액 기부 계획

역시 MBC '무한도전 영동고속도로 가요제'의 파워는 강했다.

박명수와 아이유가 부른 '레옹'부터 정준하와 윤상의 '마이 라이프'까지 음원 6곡이 예상대로 각종 음원차트 1~6위를 차지하며 이른바 '줄 세우기'를 이어가고 있다. 앨범에 수록곡이 모두 차트에서 나란히 순위에 올랐다.

그 매출 규모 역시 상당할 전망이다. 제작진은 앞서 음원 제작비용을 제외하고 가요제와 관련한 음원수익 전액을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MBC는 이를 앨범으로도 제작해 1, 2차 예약판매를 진행한 바 있다. 총 3만장을 모두 팔아치운 결과 약 3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앨범 1장당 가격은 9900원이다.

그렇다면 음원은 어떨까. 27일 음원 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한 가수의 앨범에서 10개의 수록곡이 1위부터 '줄 세우기'를 했을 때, 24시간 기준 1곡당 2억원의 매출이 발생한다. 스트리밍(실시간 듣기)과 다운로드를 합친 금액이다. '무한도전 가요제'는 총 6곡이 1위부터 6곡이 순위를 차지했으니 한 곡당 2억원, 매출로만 총 12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무한도전 가요제' 음원이 5일째 차트를 휩쓸고 있어 산술적으로는 60억원(12억원×5)의 매출을 올린 셈이다. 멜론, 지니, 벅스 등 주요 5개 음원사이트 순위에 올라 있으므로 300억원은 거뜬히 넘긴 것으로 추산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6년 8월 28일〉

이정현 스크린 데뷔작 '꽃잎' 아·태영화제 최우수작품상



영화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가 27일 현재까지 전국 40개관에서 4만여명에 육박하는 관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전체 박스오피스 11위, 하지만 다양성영화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암살'과 '베테랑' 등 여름 시즌 극장가를 장악한 기대작의 흥행세와 비할 수는 없지만 개봉 3주차에도 여전히 선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주역은 단연 이정현이다. 2억원의 제작비로 팍팍한 현실을 힘겹게 마주하는 청춘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속에서 이정현은 이야기에 힘을 더했다. 젊은 층에는 '테크노의 여전사'쯤으로만 기억될 수도 있을 이정현은 10대 시절 관객에게 강렬한 충격으로 다가온 배우이다.

1996년 오늘, 그 첫 무대였던 영화 '꽃잎(사진)'이 제41회 아시아태평양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당시 영화제에서 '꽃잎'은 남자주인공 문성근에게 남우주연상을, 이정현의 엄마 역을 연기한 이영란에게 여우조연상을 안겨주었다. '꽃잎'은 이 같은 성과 속에서 그해 34회 대종상과 17회 청룡영화상에서 신인여우상로 이정현을 더욱 빛나게 했다.

그에 앞서 4월 개봉한 '꽃잎'은 장선우 감독의 연출로 최윤 작가의 '저기 소리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를 원작으로 광주민중항쟁의 비극을 펼쳐냈다. 어머니의 죽임으로 세상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소녀 역이 이정현의 몫이었다.

이정현은 '꽃잎'에서 성인 연기자도 시도하기 어려운 과감하고 파격적인 연기로 관객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어머니의 죽음에 영혼을 잃어버린 소녀와 공사장 인부의 동거와 학대 그리고 무관심의 이야기를 통해 영화는 비극적인 항쟁의 아픔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정현은 아픔을 자신의 여린 몸으로 표현해내며 찬사를 받았다.

1995년 당시 서울 명덕여고 1년생이던 이정현은 무려 3000:1의 경쟁률을 뚫고 주인공으로 꼽혔다. 학교 수학여행의 장기자랑대회에서 끼를 발산한 그를 눈여겨본 교사의 추천으로 이정현은 오디션에 응했다. 광주항쟁이 일어난 1980년생이기도 했다. 항쟁의 아픔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나이였지만 이정현은 촬영을 준비하며, 비극적 역사의 현장인 광주 금남로에서 5000여 시민과 바로 그 비극을 촬영하며 울고 또 울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빅마우스

● **"처음엔 가리지만, 나중엔 널브러져 있다."(연기자 박성웅)** 27일 방송된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출연해. 노출연기에서 중요 부분을 가리는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50년 전통의 주방가전 名家 신일산업 SHINIL 전화로 주문하시면 전제품 (무료배송)

신일 믹서기, 식품건조기, 업소용 진공청소기 신일은 모터부터 다릅니다.

名品 최신 신일믹서기 / 고성능! / 초강력! / 대용량! 전자식 스테인레스 믹서기



8단 트레이
최대 48시간 설정
최고 70℃ 온도설정

• 풍부하고 다양한 재료를 한번에 건조할 수 있는 8단 트레이
• 한국 전통의 멋이 살린 디자인
• 골고루 건조 넓은 환풍구
• 히팅 시스템 건조기능

최대 48시간 설정 온도 타이머

SHINIL 신일 식품건조기

8단 트레이
• 색상 : 블랙 & 화이트
• 사용전압 : 220V/60Hz
• 소비전력 : 520W
• 제품크기 : 448×300×362 mm

특별판매가 159,000 원

과일, 야채건조
요구르트, 청국장 발효까지...!



SHINIL 신일 대용량 믹서

SMX-4000 KBH
• 사용전압 : 220V/60Hz
• 재질 : ABS • 중량 : 4.06kg
• 소비전력 : 650W
• 제품크기 : 270×230×420 mm
• 작동방식 : 전자식

4,000cc 대용량

특별판매가 149,000원

모타의 회전력 손실 방지를 위한 2중 고속베어링 장착

높은효율의 저소음설계



SHINIL 업소용 진공청소기

• 사용전압 : 220V/60Hz
• 용량 : 18L • 모터 : 1.58HP
• 소비전력 : 1,400W • 코드길이 : 5M
• 안전장치 :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용(T.P) T.C.O 채용

특별판매가 159,000원

• 구성품 : 본체, 연장관 2개, 바닥브러쉬, 작은브러쉬, 틈새노즐.

유흥업소, 당구장, 사무실, 여관, 식당 등 사용

제조원 : SHINIL 신일산업 (주) | 주문전화 / 031) 396-3526 | 농협 302-0599-0586-11 (예금주 김 원 중)